

자립도시 100년 설계... 농업이 미래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也)란 말이 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농업이 이를 증명했다는 결과이다. 1999년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 후 중앙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군산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차 계획을 수립해 추진성과를 이뤄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성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2차 농업·농촌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정부의 비전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이르는 향후 5년 동안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할 사업들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정부와 군산시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업·농촌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 보전 및 식품산업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을 위하여 5년 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군산시는 여건변화 분석 및 방향기획의 1단계, 지역 현황 심층조사과정의 2단계, 분야별 세부계획 검토의 3단계, 종합발전계획 도출의 총 4단계 과정을 마쳤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진행했고 2월 27일 최종보고회 이후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쳐 4월중 최종 완료했다. 특히 농업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등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 전 직원은 타상 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지역 여건을 진단해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 및 가설의 도출, 가설 검증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주요방향을 기획하는 단계를 거쳐 기본통계, 시민대상설문, 계량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기타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전문가 110명 참여해 10개 분과로 나눠 세부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임토의 과정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전화면접,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고 군산농업의 의제를 설정했으며 농업인, 농업인단체 개별 면담을 통해 세부과제들을 완성해 나갔다. 또한 종합계획을 완성해 가면서 군산시는 정부의 비전을 반영함과 동시에 군산시민의 체계화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민선7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농정철학을 바

탕으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8대 핵심과제 선정, 국정, 도정의 농업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비교 분석해 군산농업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10대 추진과제를 세밀하게 그려냈다. 그 결과 군산농업의 체질이 식량작물은 강점이 있으나 다른 분야가 취약하다는 상황에 맞춰 지역농업의 현재를 단계적으로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접근을 시도했다. 산업화와 개방화의 과정에서 한물 간 사양산업으로 치부되고 있는 군산농업이 묵묵히 농업발전을 이뤄내고자 땀을 흘리는 농업인들과 이들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 지원을 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있다면 '자립도시 군산의 100년 설계... 농업이 경제고 미래다'의 전망은 밝다.



군산시, 여건변화 분석 등 4단계 과정 마련
강임준 군산시장 농정철학 바탕 비전 수립
식량작물 외 타분야 취약 맞춰 단계적 접근



인터뷰 - 김병래 소장



▲군산시민의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철학과 비전은?
민선 7기 농정철학과 일치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군산의 농정은 공유, 순환, 사람이 철학적 기반이 될 것이구요!! 특히 공유경제 이론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와 협업, 지역의 선순환, 체인이 있는 농정이 유기적으로 결합,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상해 이를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농업 비전이 따뜻한 자립농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입니다.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
가장 고민하면서 검토한 내용은 중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줄일 방안, 원예작물의 다각화,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업기술센터의 공공성 강화 및 공유경제 플랫폼화, 지역푸드

“농업발전 5개년, 농업공유 3.0 주안점”

플랜입니다. 이를 통해 압축된 것이 군산농업 공유 3.0과 지역푸드플랜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과제에 나머지 과제들은 협력하고 귀속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고 8대 과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과제들 간 일대일, 일대 다로 밀접한 연계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의 성패는?
5개년 계획은 농축산물(1차산업), 농식품산업(2차산업), 농촌체험관광을 매개로 지역순환 체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농업경제의 순환을 매개하는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소득 작물의 다각화이고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소득 작목 육성으로 2023년까지 농업소득액을 2018년보다 67%로, 친환경재배면적은 1,000ha로 향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팔아야 할 농산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일이 향후 5년 농정의 최우선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계획 수립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려면 기존의 정책과 방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야하는데 우리가 자기부정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 그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과 군산농업발전에 대해?
이제 실무부서별로 5개년 계획에 맞게 사업을 세부화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업의 틀을 짜는 것이 급선무이고 당면 핵심과제 중심으로 환류평가제를 도입해 사업별로 진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5개년 계획은 군산농업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모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농업인, 농협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제25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천국꽃제

2019. 4. 25 목 ~ 5. 19 일

지리산 운봉 바래봉 및 어브밸리 일원

행사문의 남원 운봉애향회 (☎635-0301)